

보도일시 | 2025년 6월 17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기억을 잇다 <바다가 이어주는 것들> 창작스튜디오131에서 6월 17일부터 한달 간 개최

- 장생포 바다와 산업지대를 예술로 재해석한 공간 설치작품 선보여 -

- 설치미술 전시 《바다가 이어주는 것들》이 오는 6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창작스튜디오131에서 개최된다. 참여작가는 공간 설치미술로 주목받는 권효정 작가이다.
- 이번 전시는 울산 장생포의 바다와 산업단지의 대비되는 공간을 예술적 시선으로 재조명한다. 고래잡이의 번성과 공업지역으로서의 성장기를 지나온 장생포는 산업화의 상징이자 주민들의 삶터로, 이번 전시는 이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예술 언어로 풀어내며 변화와 순환 속 공동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 **생명의 물길, 기억의 파이프라인**
해당 작품은 장생포의 해안선과 공장 파이프라인에서 영감을 받은 대형 인공수로 설치작품이다. PVC 파이프를 연결해 공간 전체를 관통하는 수로 위로 물과 공이 흐르며 생명과 기억, 시간의 순환을 은유한다. 공은 물의 입자처럼 흐르며, 기억을 상징하고, 관람객은 그 흐름을 따라 걸으며 타인의 기억과 교차하는 감성적 서사를 경험하게 된다. 전시장은 자연과 기술, 인간과 산업이 만나는 공존의 장으로 확장된다.
- **장생포의 기억을 예술로 기록하다**
전시장에는 설치작품 외에도 관련 아카이빙 영상 2점과 장생포에서 작업한 회화 드로잉이 함께 전시된다. 이는 작품의 제작 과정과 지역의 기억을 함께 담아내며, 예술을 통한 기록과 공유의 장으로 기능한다.

○ 장생포 바다처럼, 끊임없이 살아있는 예술의 흐름

《바다가 이어주는 것들》은 장생포의 익숙한 풍경을 새롭게 비추며, 주민들의 삶에 대한 향수와 자긍심을 불러일으킨다. 동시에 예술과 지역이 긴밀히 연결되는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며, 변화하는 장생포 바다의 현재와 미래를 시사한다.

붙임. 포스터 이미지. 끝.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6. 17.
